

아날로그 매개체와 느린 서사의 정서 구조 : 멜로영화의 '지연'과 '여백'의 미학

영어영문학과 202521281 김수아

영어영문학과 202521312 박소윤

영어영문학과 202521304 차혜연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조력자 모티프: 『돈키호테』가 보여주는 관계의 움직임
 - 1) 조력자는 어떻게 등장하는가: 조력자의 개념 및 유형
 - 2) 『돈키호테』의 조력자는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가: 장면 기능 분석을 통한 주요 장면 읽기
 - 3) 산초의 조력 기능 분석: 동반자·안내자·대조자로서의 역할
 - 4) 현대 로맨스에서의 변주: 조력자가 다시 태어나는 방식
2. 타이밍 착오 모티프: 《20세기 소녀》가 만드는 감정의 파동
 - 1) 타이밍 착오의 기본 원리: AI 스토리가 보여주는 지연·부재·오해
 - 2) 왜 긴장이 생기는가: 시간 차가 감정을 움직이는 구조
 - 3) 장면으로 보는 딜레이: 감정이 축적되는 포인트들
 - 4) 기다림 이후의 감정: 카타르시스와 잔여감의 작동
 - 5) 감정 곡선 도출을 위한 분석 방법 및 시각화 과정
3. 느림 모티프의 공간: 《리틀 포레스트》의 일상이 감정을 품는 방식
 - 1) 느림 모티프의 기본 원리: AI 스토리가 보여주는 느림 모티프
 - 2) 느림이 만들어내는 리듬: 감정이 흐르는 속도
 - 3) 공간이 말을 거는 순간: 부엌·계절·손끝의 시간
 - 4) 장면으로 보는 '미세한 행동'의 힘
 - 5) 느림을 통해 회복에 이르는 과정: 기대·멈춤·다시 열림
4. 비교 분석 및 종합 논의
 - 1) 세 모티프의 구조적 공통점과 차이
 - 2) 시대·매체 환경에 따른 모티프의 전환

IV. 결론

* 참고문헌

I. 서론

① 연구 대상 및 문제 제기

로맨스 장르는 시대가 변화해도 꾸준히 사랑받아 왔지만, 인물들이 서로에게 감정을 전달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은 기술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특히 소통 수단은 단순한 배경 요소가 아니라, 감정이 전달되는 속도와 방향을 결정함으로써 서사의 흐름 자체를 형성하는 핵심 장치로 작동한다. 이로 인해 로맨스 장르는 감정이 얼마나 빠르게 혹은 느리게 도달하는가에 따라 정서적 긴장과 여운이 결정되는, ‘전달의 속도와 방식’에 의해 규정되는 장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조력자, 타이밍 착오, 느낌이라는 세 가지 모티프를 중심으로, 로맨스 서사가 본질적으로 연기와 지연의 서사적 속도에 기반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조력자 모티프는 인물 간 관계가 급격히 붕괴되는 것을 완충하며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고, 타이밍 착오 모티프는 인물 간 인식의 시점을 어긋나게 하여 서사적 긴장을 생성한다. 또한 느낌 모티프는 일상의 리듬 속에서 감정이 자연스럽게 축적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시대적 배경과 소통 환경을 지닌 세 편의 작품, 『돈키호테』, 《20세기 소녀》, 《리틀 포레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본 연구는 각 작품에서 감정의 변화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특정 장면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고, 장면 내부에서 형성되는 감정의 흐름을 감정 곡선의 형태로 시각화하여 살펴본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세 작품이 각기 다른 소통 방식 속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연된 감정 구조’를 구축하고 있음을 밝히며, 감정이 단번에 도달하지 않는 순간들—기다림과 어긋남의 시간—이 로맨스 장르를 지속시키는 핵심적인 시학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② 연구 방법론

본 보고서는 여러 작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서사적 모티프가 감정의 흐름과 서사 구조에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개별 작품의 줄거리 요약에 머무르지 않고, 모티프가 작동하는 장면의 기능과 감정 변화를 중심으로 한 질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먼저 각 작품을 대상으로 모티프가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을 선별하기 위해 장면 기능 기반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작품을 사건의 연속이 아닌 서사적 역할과 정서적 기능을 수행하는 장면 단위로 나누어 분석하는 방식으로, 장면 내에서 감정이 어떻게 형성·변화·완화되는지, 정보가 전달되거나 제한되는 방식은 무엇인지, 인물 간 인식의 시점이 일치하거나 어긋나는 지점은 어디인지를 주요 분석 기준으로 삼는다. 이를 통해 각 작품에서 조력자, 타이밍 착오, 느낌과 같은 모티프가 가장 밀도 높게 작동하는 핵심 장면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선정된 장면들을 대상으로 장면 내부에서 인물의 감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는지를 단계적으로 관찰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감정의 고조와 완충, 어긋남과 조정, 지속과 변화와 같은 정서적 움직임을 중심으로 감정의 흐름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작품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후 감정 변화의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 시를 보조 도구로 활용하였다. 연구자는 장면 분석을 통해 포착한 감정의 흐름을

바탕으로, 감정의 상대적 강도를 수치화하여 감정 곡선으로 시각화하였다. 여기서 설정된 수치는 감정의 절대적인 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값이 아니라, 각 모티프가 감정의 전개 방식에 어떠한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도식적 지표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 도출된 장면 분석과 감정 곡선은, 서로 다른 작품과 모티프가 감정의 전개 속도와 방향, 긴장의 유지 방식에 어떠한 변주를 만들어내는지를 구조적으로 드러낸다.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분석 방법을 바탕으로, 각 모티프가 서사 속에서 감정과 관계의 흐름을 조율하는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조력자 모티프: 『돈키호테』가 보여주는 관계의 움직임

1) 조력자는 어떻게 등장하는가: 조력자의 개념 및 유형

로맨스 서사에서 조력자는 주인공의 주변 인물이라는 위치를 넘어, 인물 간 감정 전달과 관계 진행을 조정하는 서사적 장치로 기능한다. 로맨스는 감정의 형성과 전달이 관계의 변화를 이끄는 구조를 갖기 때문에, 조력자의 개입은 감정 전개의 속도와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때 조력자는 관계 형성의 조건을 마련하거나, 감정의 흐름이 급격히 단절되는 것을 완화함으로써 서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조력자의 개입 방식은 대체로 직접적 설득이나 강요가 아니라, 만남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거나 감정 인식의 계기를 제공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인물 간 접촉의 기회를 마련하거나, 오해가 확대되기 이전에 감정의 완충 지점을 형성함으로써 관계가 일정한 속도로 유지되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은 감정이 즉각적으로 성취되지 않고 축적되는 로맨스 서사의 특성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러한 조력자 모티프는 <시 스토리>에 등장하는 명순 할머니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명순 할머니는 마을 공동체의 관계망과 정서를 인식하고 있는 인물로서, 도윤과 수아 사이의 관계 가능성을 파악한 뒤 이를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연결을 시도한다. 도윤을 도서관이라는 공간으로 이끄는 행위는 두 인물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는 개입이며, 이는 조력자가 관계 형성의 '사건'을 강제로 만들어내지 않고 환경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또한 도윤이 감정 표현에 대해 고민할 때 제시하는 조언은 행동을 지시하거나 감정을 단정하지 않고, 감정이 시간 속에서 전달될 수 있음을 암시함으로써 감정의 방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개입은 관계의 흐름을 조작하기보다는 감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조력자 유형에 해당한다.

조력자의 개입은 특정 인물에 한정된 예외적 장치라기보다, 로맨스 서사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변주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조력자는 관계 형성의 초기 단계에서는 인물들이 마주칠 수 있는 조건을 조정하며 서사의 출발을 가능하게 하고, 관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오해나 갈등이 즉각적인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정의 흐름을 완충한다. 또한 감정이 명확하게 표현되기 이전 국면에서는 인물의 내적 인식에 간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감정 전개의 방향이 유지되도록 조율한다. 이러한 차이는 조력자가 단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고정된 역할이 아니라, 감정 전개의 국면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서사적 장치임을 보여준다. 앞서 살펴본 조력자의 작동 방식을 종합하면, 조력자 모티프는 핵심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형화된다.

| 유형 | 핵심기능 | 요약설명 |
|----------|----------|---------------------------------|
| 관찰자형 조력자 | 정서 안정 | 직접적 개입은 최소화 하면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 |
| 안내자형 조력자 | 감정 방향 조절 | 감정이 치우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하며 조언을 주는 역할 |
| 매개자형 조력자 | 관계 연결 | 인물이 이어지도록 자연스러운 만남의 흐름을 만드는 역할 |

<표 1> 조력자 유형 분류표

각 유형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관찰자형 조력자

관찰자형 조력자는 사건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주인공의 기분변화를 곁에서 지켜보며 정서를 안정시키는 완충 장치로 작동한다. 개입량은 적지만 인물의 혼란이 극한으로 치달지 않도록 사실을 정리하거나 주변을 정돈하며, 감정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안정성을 제공한다.

② 안내자형 조력자

안내자형 조력자는 주인공의 감정이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지 않도록 정서적 방향을 제시하는 조정자다. 훈계보다 조언에 가깝고,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지 않도록 감정을 안전하게 유도하는 ‘정서적 가이드’로 작동한다. 시 스토리에서 명순 할머니가 도윤에게 “네 방식대로 천천히 전해봐”라고 말해준 것도 이 유형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③ 매개자형 조력자

매개자형 조력자는 정보와 감정을 연결하는 통로의 역할을 수행한다. 주인공이 직접 속마음을 전달하기 어려울 때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연결 경로를 마련하거나 보완한다. 전달 과정에서 오해나 지연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바로 그 불완전성이 서사의 긴장과 이야기기의 밀도를 강화하기도 한다.

명순 할머니가 도윤과 수아를 우연인 것처럼 만나게 하거나 마지막에 두 사람을 다시 마주하게 하는 행동은 매개자형 조력자의 대표적 작동 방식이다.

이 세 유형은 모두 주인공이 갑작스럽게 폭발하거나 그의 관계가 붕괴되는 것을 막고, 인물 간 감정의 자연스러운 발현과 서사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핵심 장치로 작동한다. 조력자는 단순한 주변 인물이 아니라, 로맨스 서사의 분위기와 감정 곡선을 조형하는 보이지 않는 구조적 힘이다.

2) 『돈키호테』의 조력자는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가 : 장면 기능 분석을 통한 주요 장면 읽기

『돈키호테』에서 로맨스는 인물 간의 실제 상호작용을 통해 전개되기보다, 특정 장면들이 감정의 흐름을 어떻게 유지·지연·완충하는가에 따라 구조화된다. 돈키호테의 사랑은 현실과 접촉할수록 붕괴될 가능성이 높은 상상적 감정이지만, 이 감정이 서사 속에서 급격히 붕괴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은 산초가 개입하는 일련의 장면들이 수행하는 기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돈키호테』의 로맨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초가 등장하는 개별 사건의 결과보다, 각 장면이 감정의 흐름 속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돈키호테가 돌시네아에게 편지를 보내기로 결심하는 장면은 이러한 구조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 장면에서 돈키호테의 감정은 기사도적 열망이 최고조에 도달한 상태로 나타나지만, 이 감정이 실제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다. 즉, 감정은 고조되어 있으나 아직 외부 세계와 접촉하지 못한 ‘정체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 지점에서 산초의 개입은 감정을 즉각적인 좌절이나 붕괴로 이동시키지 않고, 지속 가능한 상태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산초는 편지를 반드시 전달하겠다는 과장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돌시네아의 반응이 어떨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정의 위기로 발전시키지 않고 유예한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편지가 실제로 전달될 가능성이 아니라, 감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상태가 유지된다는 점이다.

이후 산초가 실제로 편지를 전달하지 못하는 과정 역시 사건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감정 전개의 관점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편지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표면적으로 보면 감정 전달의 실패처럼 보이지만, 장면 내부에서 이 실패는 돈키호테의 사랑이 현실과 직접 충돌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산초는 이 과정에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지 않고, 돈키호테의 심리 상태에 따라 정보를 조정하며 발화를 선택한다. 이러한 정보 조절은 감정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급격히 붕괴되지 않도록 흐름을 완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산초의 역할은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니라, 감정이 위험한 국면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하는 조율자로 기능한다.

이러한 장면들이 반복되면서 『돈키호테』의 로맨스는 독특한 감정 전개 구조를 형성한다. 감정은 고조되지만 확인되지 않고, 전달은 시도되지만 완결되지 않으며, 좌절은 예고되지만 실제로 도달하지 않는다. 이 일련의 지연 구조 속에서 산초는 감정의 고조와 붕괴 사이에 위치한 완충 지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 그는 돈키호테의 사랑이 현실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해 즉각 해체되는 것을 막고, 감정이 서사 속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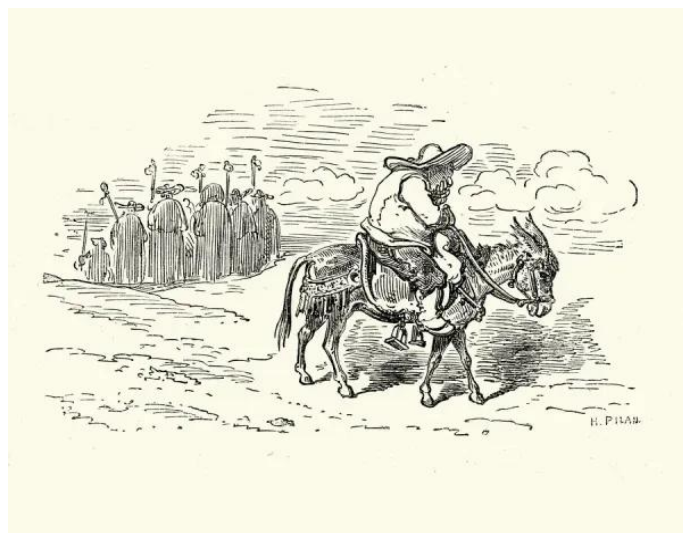
정리하면, 산초는 『돈키호테』에서 단순히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인이 아니라, 감정의 전달과 중단, 고조와 완충이 교차하는 장면들에서 반복적으로 개입하며 로맨스 서사를 유지시키는 핵심 조력자로 작동한다. 그의 조력 기능은 특정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감정이 형성되고 위기에 놓이는 여러 장면에 걸쳐 지속적으로 변주되며 나타난다. 따라서 『돈키호테』의 로맨스는 돌시네아라는 대상 인물보다, 산초가 개입하는 장면들의 기능적 연쇄를 통해 유지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제가 그분께 나리께서 하셨던 일과 하고 계신 바보짓과 미친 짓거리들을-이건 같은

말이지만요..아무튼 들려드리면, 제 아무리 그분이 코르크나무보다 단단하다 활지라도 장갑보다 더 부드럽게 되실 거고, 그러면 저는 그분의 꿀같이 달콤한 답장을 받아 들고 마법사처럼 공중을 날아 돌아와서, 지옥 같아 보이지만 지옥이 아닌 이 연옥에서 나리를 구해 드리겠습니다.”¹

이 대사의 핵심은 돌시네아가 실제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가 아니라, 산초가 돈키호테의 ‘사랑의 절차’를 서사 속에서 완성시키기 위해 스스로 역할을 수행하려 한다는 점에 있다. 산초는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하인의 위치에 머무르지 않고, 돈키호테가 신념으로서 유지하고 있는 기사적 사랑이 서사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통로를 자임한다. 이후 산초가 실제로 편지를 전달하지 못한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주인의 심리 상태와 상황을 고려해 언행을 조정하며 감정의 붕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점이다. 그는 사실을 그대로 보고하는 대신, 필요한 말과 행동을 즉석에서 선택함으로써 돈키호테의 세계관이 즉각적으로 해체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장면들을 종합하면, 산초는 돈키호테의 연애적 열망을 실제 행위의 수준으로 전환시키는 매개자이자, 감정이 좌절로 급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정서적 완충 장치로 기능한다. 동시에 그는 현실과 괴리된 기사적 사랑이 서사 속에서 일정한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구조적 동력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돈키호테』의 로맨스는 돌시네아라는 대상 인물에 의해 전개되기보다, 산초가 반복적으로 개입하는 조력·중개·실행의 장면들을 통해 유지되는 구조를 지닌다. 이 지점은 조력자 모티프가 가장 밀도 높게 작동하는 부분으로, 산초가 돈키호테의 사랑을 지속시키는 핵심 서사 장치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림 1> 산초가 편지 전달을 하기 위해 길을 가고 있는 장면

¹ 미겔 데 세르반테스, 『돈키호테 1』, 안영옥 옮김, 열린책들, 2015, 제 25 장(약 240 쪽).

3) 산초의 조력 기능 분석: 동반자·안내자·대조자로서의 역할

① 관찰자형 조력자로서의 산초

산초는 돈키호테의 비현실적 열정과 감정의 급등락을 곁에서 관찰하며, 과도한 개입 없이 정서적 흐름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는 풍차 전투, 여관 사건, 돌시네아 환상 등에서 돈키호테가 감정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순간을 지켜보되 즉각적으로 감정의 방향을 강제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서적 관찰’은 돈키호테의 광기가 과도하게 폭발해 감정적 균형을 잃는 것을 막는 중요한 완충 장치가 된다.

“저는 나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믿습니다요.”²

특히 풍차 전투 이후 장면은 관찰자형 조력자로서의 산초의 기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 발언에서 산초는 돈키호테의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는 진위의 문제를 유보한 채 주인의 세계관을 신뢰한다. 이러한 태도는 현실을 바로잡으려는 개입이 아니라, 돈키호테가 자신의 신념을 유지한 채 서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감정적 지지를 제공하는 조력자의 기능을 드러낸다. 즉, 산초는 판단자가 아니라 동반자이자 정서적 완충 장치로서 작동하며, 주인공의 세계가 즉각 붕괴되는 것을 막는다.

② 안내자형 조력자로서의 산초

산초는 필요할 때 돈키호테의 감정이 극단으로 향하지 않도록 현실적 조언을 제시한다. 특히 돌시네아 관련 환상이 붕괴될 위기에 놓일 때, 그는 과장되지 않은 설명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마법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덧붙여 돈키호테가 무너지지 않도록 방향을 조절한다. 이는 감정을 억압하거나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붕괴를 막는 ‘정서적 가이드라인’로 작용한다.

③ 매개자형 조력자로서의 산초

산초의 가장 핵심적인 조력 기능은 감정과 관계를 직접적으로 성취시키기보다, 그것이 붕괴되지 않도록 매개하고 지연하는 데 있다. 그는 돈키호테가 돌시네아와 직접 감정을 교류할 수 없는 상황에서 편지 전달자이자 메시지 해석자, 나아가 감정의 대리 전달자로 기능한다. 이러한 역할은 산초가 돈키호테의 편지를 돌시네아에게 전하러 갔다가 실제로는 전달하지 못하는 장면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산초는 이 장면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 편지는 읽지 않으셨어요.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른다고 하셨거든요. 오히려 발기발기 찢어 버리셨습디다요. 누가 읽기라도 해서 비밀이 동네방네 알려지면 안 되니까 말입니다요. 그리고 나리께서 갖고 계신 그분에 대한 사랑이나, 그분 때문에 나리께서 하고 계신 엄청난 고행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하셨고요. 끝으로, 나리의 손에 입을 맞춘다고 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요. ”³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편지가 실제로 전달되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산초가 정보와 감정을

² 미겔 데 세르반테스, 앞의 책, 제 7장(약 80 쪽).

³ 세르반테스, 『돈키호테 1』, 창비, 2015, 제 31 장, 약 300 쪽

선택적으로 재구성해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편지가 읽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동시에, 돌시네아의 호의적인 반응을 덧붙여 돈키호테의 감정이 좌절로 급락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이 과정에서 감정 전달은 지연되고 변형되지만, 바로 그 지연과 변형이 돈키호테의 사랑이 현실과 직접 충돌하는 것을 막는 완충 장치로 작동한다.

편지가 제때 전달되지 않고, 내용이 누락되거나 산초에 의해 재서술되는 과정은 표면적으로는 감정 전달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장면의 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지연은 돈키호테의 사랑이 즉각적인 검증과 붕괴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편지가 전달되지 않는 시간’은 감정의 실패가 아니라, 감정이 서사 속에서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형성된 완충의 시간이며, 산초는 이 시간을 만들어내는 매개자로 기능한다.

4) 현대 로맨스에서의 변주: 조력자가 다시 태어나는 방식

『돈키호테』와 같은 전통적 로맨스에서 조력자는 인물 곁의 실제 인물로 존재하며, 감정적 폭주를 조절하고 오해나 충돌로 서사가 급격히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 산초 판사처럼 조력자는 말과 행동을 통해 감정의 흐름을 관찰하고, 편지나 소식 전달과 같은 매개를 통해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적 장치를 수행했다.

현대 로맨스에서도 이러한 조력자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형태는 시대와 기술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1990년대 로맨스에서는 편지, 전화, 우연한 만남과 같은 제한된 소통 수단이 조력자의 역할을 강조했다면,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에는 스마트폰, 실시간 메시지, SNS,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 등 다양한 환경과 기술적 요인이 조력자의 역할을 분산적으로 수행한다. 즉, 조력자는 특정 인물에게 집중되지 않고, 메시지 알림, 타이밍 조정, 정보 필터링과 같은 형태로 인물의 감정과 관계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현대 로맨스에서 조력자는 개인이 아니라 환경·기술적 지연·시간의 간극·심리적 완충 장치 등 비인격적 요소에 의해 대체되는 경향을 보인다. 예컨대 과거에는 조력자가 직접 감정 전달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메시지의 지연, 읽음 표시의 보류, 일정의 비동기성, 생활 리듬의 차이 등이 동일한 효과를 낳는다. 즉각적 소통이 기본값이 된 시대일수록 이러한 지연 요소는 감정의 과열, 오해, 충돌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사실상 조력자 역할을 대신한다. 이는 기술적 속도가 빠를수록 감정적 오해가 확장되기 쉬운 환경에서 오히려 필수적인 장치가 된다.

또한 현대 로맨스에서 조력자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인물이 스스로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확보하게 하는 데 있다. 과거의 조력자가 명시적 조언이나 행동으로 감정의 방향을 조절했다면, 현대의 조력자는 의도하지 않은 시간적 공백, 반응의 지연, 미세한 단절의 순간 등을 통해 인물의 자기 성찰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기능을 수행한다. 즉, 개입 방식은 달라졌지만 감정의 과속을 방지하고 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목적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현대 로맨스에서 조력자는 형태만 변화했을 뿐 그 역할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과거의 조력자가 명확한 인격체였다면, 오늘날의 조력자는 시간의 틈, 소통의 간극, 반복되는 일상, 기술적 흐름의 변칙에서 나타난다. 감정의 흐름을 지나치게 빠르게 소비하지 않도록 조절하고, 인물이 감정에 도달하기까지 필요한 여유를 확보하도록 돕고, 관계가 불필요한 충돌로

붕괴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은 시대적 변화와 무관하게 동일하다.

결국 조력자는 단순히 다른 방식으로 존재할 뿐 사라지지 않았으며, 감정의 속도를 조절하고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장르적 핵심 기능은 디지털 시대에도 유지되고 있다. 이는 로맨스 서사에서 조력자 모티프가 여전히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의 개념을 정리하면 전통적 조력자와 현대적 조력자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 구분 | 전통적 로맨스의 조력자 | 현대적 로맨스에서의 조력자 |
|---------|---|---|
| 조력자의 형태 | -실제 인물 중심 -말, 행동,편지 등을 통한 직접 매개 | -기술,환경, 시간 등 비인간적 요소로 확장 -메시지 지연·읽음 보류·일상 리듬의 차이가 감정 완충 역할을 대체 |
| 작동 방식 | -직접적 개입 (조언, 행동) -감정의 흐름을 즉시 조정, 안정화 | -지연, 간극, 공백을 통한 간접적 개입 -자기 성찰, 유도, 감정 속도 조절 |
| 핵심 기능 | -관계안정, 감정의 균형 -감정 소모의 속도 완화 | -감정 과열 방지, 관계 안정 도모 -형태는 달라졌으나 기능 자체는 지속됨 |

<표 2> 전통적 조력자와 현대 로맨스 조력자의 기능 비교

2. 타이밍 착오 모티프: 《20세기 소녀》가 만드는 감정의 파동

1) 타이밍 착오의 기본 원리: 시 스토리가 보여주는 지연·부재·오해

두 사람 사이를 움직이는 힘이 언제나 조력자인 것은 아니다. 서로에게 다가가려는 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어긋남이 발생하는 순간들은 관계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다. 이어질 듯 이어지지 않는 그 작은 틈들은 만남을 잠시 돌아가게 만들지만, 바로 그 지연의 순간들이 오히려 두 사람의 거리를 좁히고 마음을 더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시 스토리에서 감정의 중심축은 ‘시간이 맞지 않는 순간들’이 만들어내는 서사적 긴장이다. 수아와 도윤은 같은 도서관에서 일상을 공유하지만, 정작 서로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장면은 매우 드물다. 대신 두 사람은 사물과 흔적을 통해 상대의 존재를 감각하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시간 차가 발생한다. 이 시간 차는 감정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오해와 불안을 자연스럽게 유발하며, 서사 전체의 리듬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첫 번째 유형은 메모와 글의 지연성이다. 도윤이 책 속에 끼워둔 메모는 수아가 그것을 발견하는 시점부터 이미 ‘과거의 마음’이 된다. 메모가 전달될 때에는 애초의 온기나 순간의 감정이 상당 부분 희미해져 있으며, 그로 인해 둘 사이에 ‘감정의 비동시성’이 발생한다. 수아의 답장 역시 도윤이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감정선은 늘 반 박자씩 어긋난 상태로 흐른다. 이 반복되는 지연 구조는 관계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붙들어 두면서도, 동시에 감정적 기대를 지속시키는 작동 방식을 가진다.

두 번째 유형은 부재의 반복이다. 도윤의 자리에 놓여 있는 종이컵, 자국이 남은 노트, 책장 위에

정돈된 흔적 등은 분명 그의 존재를 암시하지만, 정작 그는 그 순간 항상 자리에 없다. 이 부재의 반복은 방금 전까지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없는 ‘역설적 시간성’을 만들어내며, 수아는 계속해서 그 공백 위에서 감정을 추측해야 한다. 상대의 마음을 직접 확인할 기회가 사라지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불안과 호기심 쪽으로 기울게 되고, 이 불안은 곧 긴장으로 전환된다.

세 번째 유형은 이야기의 중심 장면이 되는 약속의 어긋남이다. 도윤은 정해진 약속 시간에 맞춰 느티나무 아래에서 기다리지만, 수아는 예기치 않은 업무 때문에 늦게 도착한다. 이 어긋남은 단순한 사건적 실패가 아니다. 그 순간은 두 사람의 감정이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놓여 있던 순간이기에, 그 실패는 감정의 흐름 자체에 큰 균열을 만든다. 도윤은 자신이 오해받고 있다고 느끼며 흔들리고, 수아는 자신의 호의와 진심이 제때 전달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다.

이처럼 시 스토리는 ‘지연→부재→오해’라는 딜레이의 기본 구조를 매우 명확하게 보여주며, 감정의 순간들이 서로 맞물리지 못하는 장면들을 반복적으로 쌓아 올린다. 이후 《20세기 소녀》에서 본격적으로 분석될 감정의 시간차 구조와 완전히 동일한 원리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2) 왜 긴장이 생기는가: 시간 차가 감정을 움직이는 구조

《20세기 소녀》에서 타이밍 착오는 단순히 ‘사건이 엇갈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서로 다른 속도로 흐르는 상태를 의미한다. 영화 속 긴장은 바로 그 ‘속도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한쪽 인물은 이미 알고 있지만, 다른 한쪽은 뒤늦게 알게 되며, 한쪽의 감정은 깊어졌지만 상대는 아직 그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해가 발생한다. 이러한 비대칭적 감정 구조가 서사를 이끌어가는 핵심 원리다.

특히 보라는 자신의 감정을 가장 늦게 깨닫는 인물이다. 예를 들어, 우체국 앞에서 연두를 기다리던 장면에서 운호는 길 건너편에서 보라를 바라보지만, 보라는 그 시선을 끝내 인지하지 못한다. 또한 보라는 연두의 부탁으로 현진을 관찰하고 그 정보를 연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연두가 좋아하는 사람은 ‘현진의 교복을 입고 있던 운호’였다. 보라는 관찰을 통해 운호에게 관심이 생기지만,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는 시점은 서사 중반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관객은 보라보다 먼저 그녀의 감정 변화를 직감하게 되며, 관객과 인물 사이에 시간 차가 생긴다. 이러한 차이가 영화 전반에 걸쳐 긴장을 증폭시키는 심리적 장치로 작동한다.

영화는 1990년대라는 시대적 환경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이 시간 차를 강화한다. 즉각적인 연락이 불가능한 시기, 전화는 연결되지 않고 인터넷 채팅도 불안정하며, 편지는 며칠 뒤에야 도착한다. 이러한 환경은 인물들이 서로에게 도달하기까지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시간을 만들어내며, 이 기다림은 감정의 불확실성을 한층 강화한다. 기술적 제한은 단순한 배경 요소가 아니라, 타이밍 착오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장치로 기능한다.

결국 시간 차가 만들어내는 긴장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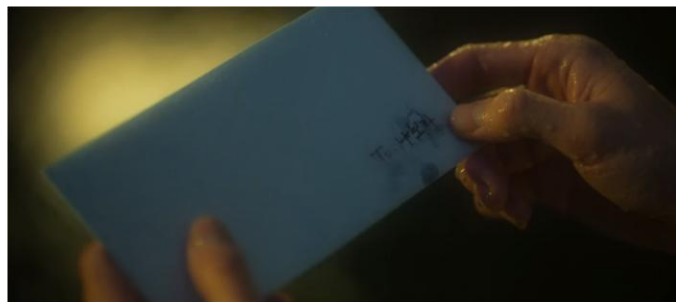
- ① 감정이 즉시 전달될 수 없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한다.
- ② 오해를 풀 기회가 늦게 도착하면서 불안이 누적된다.
- ③ 관객은 인물보다 먼저 감정의 흐름을 읽으며 기대와 긴장을 동시에 경험하고, 그로 인해 감정의 진폭이 확대된다

이러한 구조적 흐름을 통해 영화는 타이밍 착오 모티프가 긴장을 조성하는 원리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다. 감정의 속도 차이와 기다림, 그리고 관객과 인물 사이의 시간적 차이가 맞물리면서, 서사 전체에 지속적인 긴장감을 부여하는 것이다.

3) 장면으로 보는 딜레이: 감정이 축적되는 포인트들

타이밍 착오는 구체적인 장면을 통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며, 각 장면은 감정이 즉시 발화되지 못하고 고여 있는 지점으로 작동한다. 《20세기 소녀》는 이러한 포인트들을 세밀하게 배치하여, 감정의 흐름을 느리게 움직이면서 서사적 여백을 확장한다.

첫째, 운호와 보라의 엇갈림 장면은 시간적 어긋남과 정보 지연이 긴장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보여준다. 뉴질랜드로 돌아가야 하는 운호는 보라를 만나기 위해 비디오테이프를 들고 가게로 찾아가지만, 그날 보라의 동생이 아파 병원으로 실려가면서 두 사람은 불과 몇 시간 차이로 만나지 못한다. 이 장면에서는 행동과 정보가 시차를 가지는 상황이 관객에게 긴장으로 전달된다. 운호는 가게 문 앞에서 기다리지만, 보라는 병원에 있어 만나지 못한다. 관객은 두 사람의 위치와 시간 차를 동시에 인식하며, ‘거의 닿을 듯하지만 닿지 않는’ 아쉬움을 체감하게 된다.



<그림 2> 운호가 보라에게 남긴 편지

둘째, 교복 착각으로 인한 오해 장면은 정보 비대칭과 감정 지연이 얽히면서 갈등을 복잡하게 만든다.

"나, 심장을 도둑맞았어."⁴



⁴ 방우리 감독, <20세기 소녀>, Netflix, 2022, 00:03:28-00:03:34.

<그림 3> 자신의 마음을 깨달은 연두

연두는 입학 전 청주우암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남학생을 보고 첫눈에 반하지만, 그 남학생은 현진이 아니라 잠시 현진의 교복 재킷을 입은 운호였다. 연두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현진이라고 착각하고, 보라는 연두를 위해 현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이 장면에서 감정과 정보의 비대칭이 긴장을 발생시키며, 관객은 인물보다 먼저 사실을 직감하게 된다. 보라는 운호에게 관심이 생기지만, 이를 자각하지 못한 상태가 이어져 긴장이 축적된다.

셋째, 연두가 진실을 알게 되는 장면은 감정의 고립과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한다.

"나한테 할 말 없어? 너 풍운호 좋아하지? 왜 말 안 했어?"⁵



<그림 4> 보라가 운호를 좋아한다는 것을 연두가 알게 된 장면

연두는 집으로 가는 길에 현진을 통해 보라와 운호가 서로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보라를 추궁한다. 보라는 연두를 배려하며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연두는 보라가 자신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려 한다고 오해한다. 빗속에서 진행되는 대화는 감정이 즉시 해소되지 않고 화면 안에서 고여 있는 상태를 보여주며, 관객은 인물의 심리적 불안을 직접 체감하게 된다.

결국, 타이밍 착오는 단순히 서사의 속도를 늦추는 장치가 아니라, 감정의 깊이를 확보하고 인물 관계를 밀도 있게 만드는 서사적 장치로 작동한다. 시간 차와 정보 비대칭, 기다림이 맞물리며, 감정이 화면 안에서 고여 있다가 이후 큰 파동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낸다.

4) 기다림 이후의 감정: 카라시스스와 잔여감의 작동

타이밍 착오는 궁극적으로 인물을 ‘기다림’의 상태에 머물게 하며, 이 기다림은 감정적 폭발을 위한 구조적 기반이 된다. 그러나 《20세기 소녀》가 보여주는 감정의 해소는 단순한 만족감으로 귀결되지 않는다. 영화 속 감정은 해소와 상실이 중첩된 ‘복합적 카타르시스’의 형태를 띤다. 감정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찾아오지만, 그 진실은 이미 너무 늦게 도착해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⁵ 방우리 감독, 앞의 영화, 01:19:29-01:19:47.

이 복합적 감정 구조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장면은 ‘운호의 비디오 카메라에 남겨진 녹화 영상을 보러가 뒤늦게 확인하는 장면’이다.

“조금만 기다려 곧 만나러 갈게. 보고 싶어, 21 세기의 네가”⁶



<그림 5,6> 비디오 영상 속 운호와 연두의 모습

그 영상 속에는 보라를 향해 조심스럽게 웃는 운호의 마음, 친구들 사이에서 그를 둘러싼 이야기, 그리고 보라에게 말하지 못했던 여러 감정들이 담겨 있다. 이 순간 보라는 ‘운호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가’를 처음으로 온전히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이미 운호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찾아온 진실이기 때문에, 감정은 폭발과 동시에 깊은 상실감으로 가라앉는다. 이것이 바로 ‘카타르시스와 잔여감의 결합’이다. 진실을 알게 되는 해소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의 지연이 남긴 슬픔이 관객과 인물 모두에게 오래 남는다.

이러한 감정의 흐름은 타이밍 착오 모티프가 작동하는 네 단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① 감정의 지연

이 단계는 감정이 즉시 전달되지 못하는 단계이다. 전화가 끊기고, 편지를 받지 못하고, 오해가 바로 풀리지 않으며, 보라와 운호는 서로의 내면을 시차를 두고 이해하게 된다. 이 지연은 인물의 감정을 한순간에 터뜨리지 않고, 머물도록 만들어 긴장과 불안을 발생시킨다.

② 감정의 축적

지연된 감정이 쌓이며 점점 농도가 진해지는 단계이다. 보라가 운호를 오해한 채 멀어지고, 운호는 보라에게 다가가고 싶어도 다가갈 수 없는 순간들이 반복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되지 않은 감정들이 층층이 쌓인다. 관객은 이 축적 과정을 통해 인물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③ 감정의 폭발

지연되고 축적된 감정이 한 번에 드러나는 순간이다. 보라가 운호의 카메라 속 영상을 보며 운호의 진심을 뒤늦게 확인하는 장면이 바로 이 정점이다. 감정의 절정은 사실의 발견 자체보다, 그 사실이 ‘너무 늦게 발견되었다’는 데서 더욱 강렬해진다.

⁶ 방우리 감독, 앞의 영화, 01:54:29-01:55:04.

이때 인물과 관객은 동시에 강한 정서적 충격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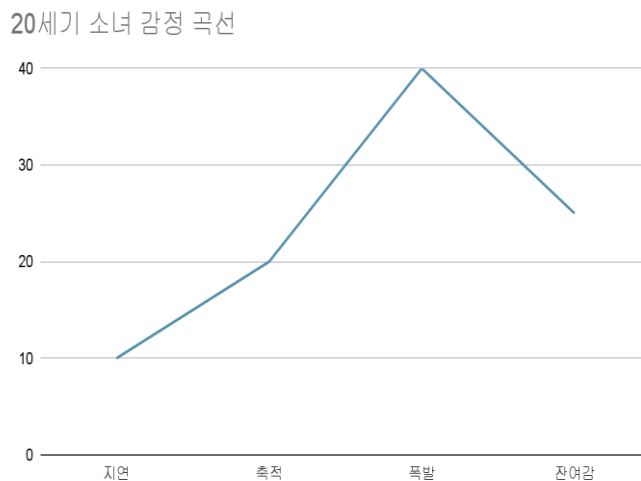
④ 감정의 잔여감

감정의 폭발 이후에도 남는, 사라지지 않는 여운의 단계이다. 운호의 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미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그의 부재는 끝내 채워지지 않는다. 영화의 마지막까지 보라의 삶 속에 운호의 기억이 남으며, 관객 또한 그 감정의 잔여감을 지속적으로 느끼게 된다. 잔여감은 이야기의 정서를 지배하는 핵심적 요소로 작동한다.

결국 타이밍 착오 모티프는 ‘지연 → 축적 → 폭발 → 잔여감’이라는 감정적 구조를 통해, 로맨스 서사를 단순한 성취의 서사가 아닌 ‘시간과 감정의 어긋남’이 만들어내는 복합적 정서 경험으로 확장한다. 기다림은 감정의 깊이를 키우고, 너무 늦게 도착한 진실은 인물과 관객 모두에게 오랫동안 남는 여운을 만든다.

이 잔여감이 바로 《20 세기 소녀》가 가진 정서적 힘이며, 타이밍 착오 모티프가 로맨스 장르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5) 감정 곡선 도출을 위한 분석 방법 및 시각화 과정



<표 3> 《20 세기 소녀》 감정 곡선

<표 3>은 《20 세기 소녀》에서 타이밍 착오 모티프가. 감정의 지연, 축적, 폭발, 잔여감이라는 단계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시각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20 세기 소녀》에서 타이밍 착오 모티프가 정서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감정 곡선 표를 제작하였다. 감정 곡선 도출의 첫 단계로, 타이밍 착오가 가장 응축되어 드러나는 핵심 장면을 선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었다. 이를 위해 시 기반 장면 기능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영화의 주요 장면들을 감정 전환, 정보 비대칭, 서사적 긴장의 집중 여부를 기준으로 분절하였으며, 그 결과 운호의 카세트 테이프 영상이 공개되는 장면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해당 장면은 인물의 감정이 즉각적으로 전달되지 못한 채 축적되었다가 뒤늦게 폭발하는 동시에, 해소 이후에도 강한 잔여감을 남기는 지점으로, 타이밍 착오 모티프의 작동 단계를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연구자는 이 장면을 중심으로 장면 내부에서 인물의 감정 상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단계적으로 관찰하고, 감정의 상승·전환·완화 지점을 세부적으로 포착하였다.

이러한 정성적 분석을 바탕으로, 시를 활용해 감정 변화의 상대적 강도를 수치화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감정의 수치는 절대적 감정량을 측정하기 위한 값이 아니라, 장면의 흐름 속에서 감정이 어떻게 지연되고 축적되며 폭발하고 잔여감으로 이어지는지를 구조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지표로 설정되었다. 각 단계는 감정의 변화 방향과 강도를 기준으로 구분되어 입력되었으며, 이를 통해 감정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정리한 감정 곡선이 도출되었다.

이렇게 제작된 감정 곡선 표는 타이밍 착오 모티프가 단일한 감정의 상승이나 해소가 아닌, 지연과 축적을 거쳐 폭발한 이후에도 정서적 여운이 지속되는 복합적 구조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감정 곡선은 본문에서 분석한 ‘지연 → 축적 → 폭발 → 잔여감’이라는 감정 구조를 보완하는 분석 도구로 기능하며, 타이밍 착오 모티프의 정서적 작동 원리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3. 느낌 모티프와 공간 상징성과 서사적 의미: 《리틀 포레스트》의 일상이 감정을 품는 방식

1) 느낌 모티프의 기본 원리: 시 스토리가 보여주는 느낌 모티프

이 이야기에서 감정은 한 번에 도달하지 않는다. 수아와 도윤의 관계는 중요한 순간마다 즉각적인 반응 대신 ‘한 박자 늦은 행동’을 반복하며 전개된다. 이 느린 진행은 단순한 분위기가 아니라, 서사 속에서 실제로 관찰 가능한 장면들을 통해 드러난다.

시 스토리에서 느낌은 감정이 표현되는 방식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다. 도윤은 수아에게 마음을 느끼는 순간에도 곧바로 말을 건네지 않는다. 그는 명순 할머니에게 조언을 구한 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도서관 대출카드 구석에 메모를 남긴다. 이 장면에서 감정은 즉시 전달되지 않고, 글로 옮겨지는 과정을 거치며 한 차례 늦춰진다. 독자는 이 지연을 통해 도윤의 마음이 충동이 아니라 오랜 체류 끝에 나온 감정임을 알게 된다.

첫 번째 유형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느낌이다. 도윤의 메모는 짧지만, 그 메모가 등장하기까지의 시간은 길다. 그는 수아의 모습을 반복해서 떠올리고, 비 오는 날 건네받은 종이컵의 온기를 마음속에 오래 간직한 뒤에야 글을 쓴다. 감정이 곧바로 말이 되지 않고, 기억과 일상을 여러 번 통과한 뒤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느낌은 구체적인 시간의 축적으로 드러난다.

두 번째 유형은 일상의 반복 속에서 나타난다. 수아는 도윤의 메모를 발견한 뒤에도 즉시 답장을 남기지 않는다. 그녀는 대출카드를 다시 꺼내 읽고, 문장을 곱씹은 뒤 조심스럽게 자신의 글씨를 남긴다. 이후 두 사람은 한 장의 카드 위에서 여러 차례 문장을 주고받지만, 그 대화는 항상 ‘비어 있는 시간’을 사이에 둔다. 독자는 이 반복 구조를 통해 두 사람의 감정이 급격히 변하는 대신, 같은 장면을 조금씩 다른 온도로 통과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세 번째 유형은 결정의 순간에서 발생한다. 이 느낌은 도윤이 느티나무 아래에서 기다리는

장면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한 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을 그대로 견뎌다. 뻘뻘 몇 번이고 확인하고, 해가 기울며 바람이 차가워지는 동안에도 그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 장면에서 독자는 감정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채, 한 지점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도윤의 시선을 통해 길게 체감하게 된다.

같은 시각, 도서관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의 느낌이 발생한다. 수아는 반납 정리를 마친 뒤에야 도윤의 메모를 발견하고, 그제서야 약속을 떠올린다.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야 도서관을 뛰쳐나오지만, 느티나무 아래에는 아무도 남아 있지 않다. 도윤이 한 자리에 머무르며 흘러보낸 시간은, 수아에게는 도착했을 때 이미 비어 있는 시간으로 돌아온다.

이 장면에서 느낌은 두 사람의 감정이 어긋난 방식으로 경험되는 시간이다. 도윤에게 느낌은 '기다림으로 채워진 시간'이고, 수아에게 느낌은 '도착했을 때 사라져 있는 순간'이다. 같은 약속은 서로 다른 시간의 체험으로 남고, 이 어긋난 느낌이 이후 오해와 감정의 흔들림을 만들어내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이처럼 시 스토리의 느낌 모티프는 메모를 쓰기까지의 시간, 답장을 남기기까지의 망설임, 약속 장소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기다림처럼 구체적인 장면들 속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된다. 독자는 이 장면들을 통해 감정이 서두르지 않고, 항상 한 번 더 지체된 뒤에야 다음 국면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다. 느낌은 설명되는 개념이 아니라 장면을 통해 체감되는 서사의 리듬으로 기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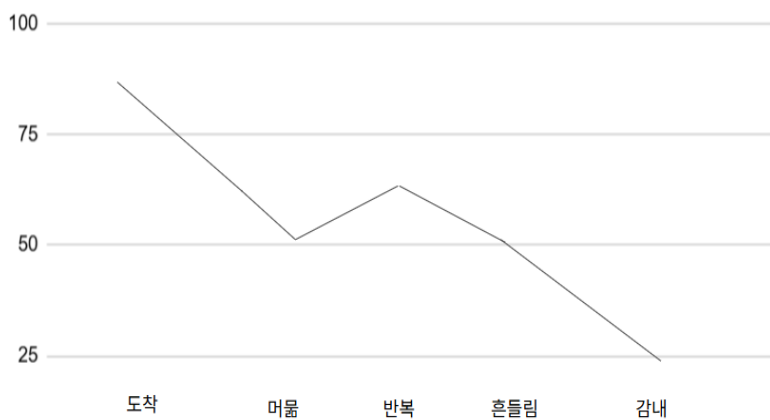
2) 느낌이 만들어내는 리듬: 감정이 흐르는 속도

<리틀 포레스트>에서 혜원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가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시간이 천천히 간다'는 사실이다. 도시에서는 출근 시간, 점심시간, 퇴근 후 약속까지 하루는 빈틈없이 채워져야 했고 그 사이사이 생기는 짧은 공백마저도 '무언가를 하지 않는 시간'으로 여겨졌다. 이런 환경에서 혜원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제대로 들여다볼 여유를 갖지 못했다. 빠름이 당연시되는 세계에서 혜원은 끊임없이 다음을 준비해야 했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이다.

도시에서 쉼 없이 이어지는 세계에 살던 혜원은 시골에 돌아와 밥을 짓고 물을 길며 밭에서 잡초를 뽑는 일 속에서 비로소 숨을 고를 여유를 되찾는다. 한 가지 일을 끝내도 다음 일을 서둘러 찾지 않아도 되며, 오히려 일과 일 사이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빈 시간 동안 혜원은 그저 마루에 앉아 바람을 느끼거나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느린 흐름 속에서 혜원은 결론을 재촉하지 않아도 되고, 아직 모르는 채로 있어도 괜찮다는 마음을 천천히 배워간다.

아직 모르는 채로 머물러도 괜찮은 환경에서 그녀는 오늘을 견디는 데에만 집중하며, 자신의 속도를 다시 찾는다. 하루가 조금 비어 있어도 그 또한 실패가 아니라 삶의 일부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빈 시간은 숨을 고르는 여백이 된다. 밥을 짓고 밭을 돌보는 일들은 그녀를 재촉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가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감각을 되살려준다. 혜원에게 느낌은 게으름이 아니라 자신을 지탱하는 방식이며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는 조용한 위로가 된다.

리틀 포레스트 감정 곡선



<표 4> 《리틀 포레스트》 감정 곡선

3) 공간이 말을 거는 순간: 부엌·계절·손끝의 시간

혜원의 부엌은 단순한 요리 공간을 넘어, 마음을 다듬고 정리하는 장소처럼 보인다. 칼질을 하고, 불을 조절하고, 재료가 익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머릿속은 차분해지고, 급하게 답을 찾으려던 마음도 조금씩 가라앉는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손을 움직이다 보면, 손끝에 닿는 재료들이 제철의 시간을 품고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느끼게 된다. 그때 혜원은 어머니가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오른다.

"겨울이 와야 정말로 맛있는 귤감을 먹을 수가 있는 거야."⁷



<그림 7> 혜원의 어머니가 혜원에게 조언을 해주는 모습

⁷ 임순례 감독, <리틀포레스트>, Netflix, 2018, 01:27:30 - 01:27:36.

꽃감은 서두른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찬 겨울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수분이 빠져나가고, 단맛이 응축되는 시간을 거쳐야만 비로소 그 맛을 낸다. 인위적으로 빨리 말릴 수도 없고, 과정을 건너뛸 수도 없다. 마치 해원이 지금 겪고 있는 시간처럼, 아무리 빨리 벗어나고 싶어도 거쳐야 할 계절이 있고, 그 계절을 온전히 통과해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자연은 말없이 가르쳐준다. 이렇듯 해원에게 계절의 느낌은 단순한 더짐이 아니라,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감정을 자연스럽게 익혀가는 시간이다.

시간을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봄이 오듯, 마음도 언젠가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공간이 대신 전해준다. 억지로 빨리 나아지려 하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이어가다 보면, 어느새 다른 계절이 와 있듯 마음도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과, 급하게 변화하지 않아도 자신의 시간을 견디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위로를 눈발이 조용히 건넨다.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 보여도, 흙 아래에서 이미 싹이 준비되고 있음을 보여주듯 말이다.

그렇게 눈발에서 버터낸 시간 속에서 자라난 수확물이 부엌으로 들어오고, 해원은 그 결실을 직접 요리하며 오늘을 살아낸 결과를 손으로 확인한다. 부엌에서 만들어진 음식은 해원이 오늘을 살아냈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되고, 손끝으로 무언가를 완성해내는 감각은 삶을 다시 자신의 손에 쥐고 있다는 확신으로 이어진다. 특히 도시에서 무력감을 느껴온 해원에게 직접 만든 음식을 먹는 일은 자신의 행동이 실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증거가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순간 속에서도, 적어도 한 끼의 식사는 스스로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작은 성취감으로 다가오며, 그 과정은 언제나 느리고 차분하며 서두르지 않는다.

4) 장면으로 보는 ‘미세한 행동’의 힘

해원의 회복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행동들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보인다. 발고랑을 고르게 긋는 일, 된장이 끓는 동안 물끄러미 김이 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는 일, 혼자 앉아 먹는 밥 한 숟가락까지도 모두 감정의 일부처럼 느껴진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행동들은 "내가 지금 이곳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게 한다. 이 작은 행동들은 모두 느리게 진행된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한 동작 한 동작에 집중하며, 그 순간을 온전히 경험한다.

예를 들어, 도시에서 지쳤던 해원이 현재의 삶에서 직접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남의 평가 없이도 충분히 내 삶을 긍정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낀다.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압박 없이, 그저 자신이 만든 것을 자신이 맛있다고 느끼는 그 감각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해원은 조금씩 받아들인다.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해원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닌, 자기 자신의 감각을 믿는 연습을 하게 된다. 그 연습은 천천히, 조금씩, 반복되며 쌓여간다.



<그림 8> 말없이 식탁에 앉아 천천히 식사를 이어가는 혜원의 모습

또한, 친구들과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음식을 나눌 때는 관계의 온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 딱히 특별한 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접시의 음식만으로도 서로를 이해시키고 연결한다. 혜원이 만든 음식을 친구들이 먹으며 건네는 “맛있다”라는 짧은 말 한마디에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다. 함께 식탁에 앉아 음식을 나누는 시간이, 아주 조금씩 일상의 친밀감을 되찾는 순간으로 이어지는 듯하다. 이 관계의 회복이 눈에 보이게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느린 속도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작고 조용한 변화가 쌓여간다.

이렇게 쌓인 미세한 행동들은 혜원에게 작지만 확실한 변화들을 가져오며, 삶이 다시 자신을 받아주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안도감을 준다. 극적인 전환점이나 깨달음의 순간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일들이 조금씩 혜원을 변화시킨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나아진 것 같고,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조금 더 견딜 만해진 것 같은, 그런 미세한 변화들이 모여서 결국 혜원이 다시 도시로 돌아갈 힘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 변화는 천천히,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조용히 일어나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영화는 이러한 일상의 반복에서 혜원의 표정이나 손놀림에서 조금씩 달라진 무언가를 포착하며 독자에게 지루함을 선사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힘들게 하던 발일이 나중에는 조금 더 익숙하게 느껴지고, 처음에는 무표정하게 먹던 밥을 나중에는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모습 같은 것들이다. 이런 세밀한 변화들이 혜원의 내면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음을 조용히 보여준다. 느림 속에서 회복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된다.

5) 느림을 통해 회복에 이르는 과정: 기대·멈춤·다시 열림

혜원의 치유는 한 방향으로만 나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오늘 괜찮다가도 내일 갑자기 불안에 잠기고, 다시 잠시 안정을 찾는 식으로 흔들린다.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나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지만,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고 싶어진다. 이러한 반복이 마치 실패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영화는 이것을 자신을 단단히 세워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그린다. 회복은 느리게, 때로는 뒤로도 물러날 때가 있지만, 곧 다시 조금씩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혜원은 시골에서 지내며 "완전히 괜찮아져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조금씩 벗어난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생각 대신, 여전히 불안하고 불확실해도 일단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게 된다. 잠시 멈춰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도망쳐온 길이라도 돌아가서 다시 마주할 힘이 생긴다는 걸 느린 시간 속에서 조금씩, 천천히

깨닫는다. 혜원은 이제 조용히 말한다.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는 맺는 그 모든 건 타이밍이다. 기다린다. 기다린다."⁸



<그림 9> 자연 속에서 차차 여유를 찾아가는 혜원의 모습습

자연의 리듬은 억지로 앞당겨질 수도, 건너될 수도 없다. 씨앗이 땅속에서 싹을 틀 준비를 하듯, 꽃이 필 때를 기다리며 영양분을 모으듯, 열매가 익어가는 시간을 견디듯, 혜원 역시 지금 이 순간을 통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제는 안다. 기다림은 무기력이 아니라,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다. 느리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혜원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다.

결국 그녀가 도시로 돌아가기로 한 선택은 모든 것을 해결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로도 살아갈 것을 선택한 결과처럼 느껴진다. 도시로 돌아가는 혜원의 표정은 완전히 밝아진 것도 아니고, 모든 걱정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녀가 이제 불확실함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조금은 키웠다는 것이다. 재하는 혜원을 보며 말한다.

"아주심기, 지금 혜원이는 아주심기를 준비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⁹

아주심기란 모종을 본밭에 옮겨 심는 일로, 작은 모종이 더 넓은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 역시 서두를 수 없다. 모종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뿌리를 천천히 내리고, 단단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혜원이 도시를 떠나 시골로 온 것은 도망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뿌리내리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을 재하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도 힘든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알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혹은 어디에 있던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혜원에게는 중요한 변화이다. 그리고 그 방법의 핵심에는 '느림'이 있다.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속도를 존중하며, 천천히 나아가는 것이다.

⁸ 임순례 감독, 위의 영화, Netflix, 2018, 00:39:00 - 00:40:12.

⁹ 임순례 감독, 위의 영화, Netflix, 2018, 01:33:08 - 01:35:03.

기대와 멈춤을 오가며 생긴 여유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 조금씩 가까워지게 한다. <리틀 포레스트>가 보여주는 회복은 문제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함께 살아갈 힘을 되찾는 데에 있다. 혜원은 시골에서 모든 답을 찾은 것이 아니라, 답이 없어도 하루를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운 듯하다.

“나도 나만의 작은 숲을 찾아야겠다”¹⁰



<그림 10> 자연 속에서 삶의 속도를 되찾은 혜원의 모습

느림은 혜원에게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여유를 주며,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안도감을 건넨다. 영화가 끝나갈 무렵 혜원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 불안도 혼란도 남아 있지만, 이전과는 달리 그 상태로도 계속 걸어갈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긴다.

이것이 영화가 전하는 치유의 방식이다. 특별한 변화나 극적인 해결이 아니라, 아주 작은 속도로 스스로를 다시 믿어보는 일이다. 느림을 통해 자신을 돌보고 필요한 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과정, 바로 그 시간이 치유임을 <리틀 포레스트>는 보여준다.

4. 비교 분석 및 종합 논의

1) 장면 기능 기반 방법론과 장면 선정의 원리

본 보고서에서 세 작품의 특정 장면들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작품 전체를 포괄하기보다는 감정의 흐름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지점을 중심으로 장면을 선별하는 ‘장면 기능 기반’ 분석 방식을

¹⁰ 임순례 감독, 위의 영화, Netflix, 2018,01:30:45 - 01:30:50..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 방법론은 원래 시가 영상 속 인물·배경·행동·음향 등을 기준으로 장면을 서로 다른 단위로 나누는 방식에서 착안하였고, 이를 문학·영화 분석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즉, 사건의 크기나 서사적 비중이 아니라, 감정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조정되는지가 잘 드러나는 장면을 중심에 두고 각 모티프의 핵심 사례를 골랐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돈키호테』에서는 산초가 돈키호테의 말을 받아 적거나 편지를 전하려 하는 장면들, 《20세기 소녀》에서는 전화 연결 실패·약속의 어긋남처럼 시점이 서로 지나치며 마음이 어긋나는 장면들,

《리틀 포레스트》에서는 부엌·계절·일상 반복처럼 감정이 천천히 정리되는 순간들이 분석의 중심에 놓였다. 즉, 이 장면들은 작품의 서사 구조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지점이며, 장면 기능 기반 방식이 장면의 선택과 해석을 이끄는 기준이 되었다.

이렇게 추출된 장면들을 비교하면 세 모티프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작동하지만 공통된 흐름을 보여준다.

『돈키호테』의 조력자 모티프는 인간 인물이 감정의 흐름을 다루는 방식에 집중하고, 《20세기 소녀》의 타이밍 착오 모티프는 시간적 어긋남이 감정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 주목하며, 《리틀 포레스트》의 느림 모티프는 공간과 일상의 리듬 속에서 감정이 정리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각각의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감정이 즉시 결론에 이르지 않고 한 번 더 머물고 돌아보게 만드는 점에서 공통된 서사적 경향을 공유한다.

결국 장면 기능 기반 분석은 세 작품을 단순히 소재나 장르가 다른 텍스트로 보지 않고, 감정이 어떤 순간에서 변화하고 어긋나고 정리되는지를 기준으로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세 모티프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감정의 흐름을 조절하면서, 로맨스 서사에 필요한 여백과 축적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하나의 비교 가능한 구조로 묶인다.

2) 세 모티프의 구조적 공통점과 차이

조력자 모티프, 타이밍 착오 모티프, 느림 모티프는 겉으로는 서로 다른 장면과 장르를 다루지만, 모두 “감정이 곧바로 폭발하지 않도록 붙잡고 조율하는 장치”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돈키호테』의 산초와 <시 스토리>의 명순 할머니는 사람의 형태를 한 조력자로서 감정의 방향과 강도를 조정하고, 《20세기 소녀》의 타이밍 착오는 전달 시점의 어긋남을 통해 감정을 지연시키며, 《리틀 포레스트》의 느림 모티프는 공간과 일상의 리듬을 통해 감정을 서서히 정리하도록 만든다. 세 모티프 모두 감정이 즉시 소비되지 않고 한 번 더 머물도록 만들어, 로맨스 서사가 단순한 사건 나열이 아니라 “조절된 감정 경험”으로 구성되게 한다는 점에서 접점을 형성한다.

차이는 감정을 조절하는 주체와 통로에서 나타난다. 조력자 모티프에서는 인간 인물이 전면에서 감정의 완충 장치가 된다. 타이밍 착오 모티프에서는 특정 인물이 아니라 ‘시간의 어긋남’이 긴장을 만들어내는 실제적인 매개체가 된다. 느림 모티프에서는 공간, 계절, 일상 행위 등 환경이 감정의 속도를 규정하고, 인물이 그 속도에 몸을 맞추는 방식으로 서사가 진행된다. 정리하면, 조력자는 “누가 감정을 붙잡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타이밍 착오는 “언제 전달되는가”, 느림 모티프는 “얼마나 느리게 진행되는가”에 주목한다. 이러한 점에서 세 모티프는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감정의 과속을 막고 관계의 붕괴를 늦추려는 서사적 의도를 갖는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3) 시대·매체 환경에 따른 모티프의 전환

1990년대 로맨스 서사에서는 기술적 한계가 자연스럽게 서사의 조건으로 작동한다. 《20세기 소녀》에서 편지, 공중전화, 불안정한 인터넷 환경은 인물의 의도와 상관없이 “지연”과 “부재”를 만들어내며, 이러한 시간 차가 타이밍 착오 모티프의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 《리틀 포레스트》와 <AI 스토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손글씨, 아날로그 시계, 시골 마을의 느린 시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990년대적 환경에서는 매개체가 단순하고 물리적이기 때문에, 감정이 전달되기 전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서사 속에 포함된다.

반면 2020년대에는 스마트폰, SNS, 실시간 메신저가 기본값이 되면서 “지연”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워진다. 이로 인해 조력자 모티프와 느림 모티프는 새로운 방식으로 변형된다. 예를 들어, 조력자의 일부 기능은 특정 인물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읽음 표시’, 답장이 오지 않는 채팅창, 일정 충돌 등 비인격적 요소로 분산된다. <AI 스토리>에서 설정한 1990년대 배경 역시, 기술적으로는 즉시 소통이 가능한 2020년대적 감각에서 보면, 감정의 속도를 일부러 늦추기 위해 선택된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서사는 더 이상 기술의 속도에 자신을 맡기지 않고, 일부러 아날로그적 지연과 공간을 불러와 감정의 깊이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취한다.

결국, 1990년대에서 2020년대로의 이동은 모티프 자체가 사라지는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대신, “누가, 무엇이 그 기능을 수행하는가”가 달라진다. 과거에는 조력자, 편지, 공간이 자연스럽게 감정을 붙잡는 역할을 했다면, 현대에는 의도적인 느림, 일부러 만든 시간 차, 디지털 환경 속 응답 지연 등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서사는 기술 환경에 따른 속도에 그대로 종속되지 않고, 다시금 감정의 흐름을 조절하는 장치를 내부에 설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IV. 결론

본 연구는 장면 기능 기반 분석 방법과 감정 곡선 시각화를 통해 로맨스 서사의 정서 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의의를 지닌다. 또한 서로 다른 시대와 매체를 아우르는 작품 분석을 통해 로맨스 장르가 본질적으로 '지연과 여백의 서사'임을 이론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기여가 있다. 본 연구는 『돈키호테』, 《20세기 소녀》, 《리틀 포레스트》를 대상으로 다양한 장르의 서사에서 감정이 형성·전달·조율되는 방식을 조력자 모티프, 타이밍 착오 모티프, 느림 모티프라는 세 가지 분석틀을 통해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세 작품은 시대적·매체적 환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지연된 감정 구조'를 통해 시간의 경과 속에서 정서적 깊이를 서서히 형성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우선, 조력자 모티프 분석을 통해 『돈키호테』의 산초가 관찰자·안내자·매개자로서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며, 전달 과정의 지연을 통해 감정이 성급하게 소비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함을 밝혔다. 이러한 조력자의 역할은 현대 로맨스에서 기술적 지연, 환경적 요소 등 사물의 형태로 변형되면서도 동일한 서사적 기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타이밍 착오 모티프 분석에서는 《20세기 소녀》가 1990년대 아날로그 매개체를 활용하여 '감정의 지연→축적→폭발→잔여감'이라는 단계적 구조를 도출했다.

감정 곡선 시각화를 통해 이 구조가 인물 간 인식의 시차와 정보 비대칭을 통해 서사적 긴장을 생성하며, 너무 늦게 도착한 진실이 복합적 카타르시스를 발생시킴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느낌 모티프 분석에서는 《리틀 포레스트》가 부엌·계절·일상 행위라는 공간적·시간적 요소를 통해 감정이 자연스럽게 축적되고 정리되는 과정을 보여줌을 제시하였다. 느낌은 단순한 서사 지연이 아니라 인물이 자기 성찰과 회복에 이르도록 하는 핵심 기제로 작동하며, 이는 이야기 구조에서 감정의 설득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장치임을 확인하였다.

세 모티프의 비교 분석 결과, 조력자 모티프는 '누가 감정을 조율하는가', 타이밍 착오 모티프는 '언제 전달되는가', 느낌 모티프는 '얼마나 느리게 진행되는가'에 각각 초점을 맞추지만, 모두 감정의 즉각적 소비를 방지하고 서사적 여백을 확보한다는 공통된 기능을 수행함을 밝혔다. 또한 시대·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력자의 형태, 지연의 발생 방식, 느낌의 구현 수단은 달라지지만, 감정의 속도를 조절하는 핵심 기능은 지속된다는 점을 관찰하였다.

본 연구는 장면 기능 기반 분석 방법과 감정 곡선 시각화를 통해 로맨스 서사의 정서 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의의를 지닌다. 또한 서로 다른 시대와 매체를 아우르는 작품 분석을 통해 로맨스 장르가 본질적으로 '지연과 여백의 서사'임을 이론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기여가 있다.